

교차로

모범교사에 표창패 수여

일면 광동학원이 사장(조계종 교육원장)은 12일 광동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모범교사로 추천된 이강삼(광동중수학)·신택용(광동중고국어)·박성기(광동여고 일본어) 씨등 교사 3명에게 표창패 및 상금 1백만원을 수여한다.

동화사 영산전 행화전인 성덕 동화사 주지는 1일 영산전 후불탱화 및 16나한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캉 우니를시원 방문 지원 삼보사 주지는 1월 25일~30일 까지 삼보사 국제문화교류위원 12명과 캄보디아 프놈펜 우니를 사원을 방문하고, 의류와 학용품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스님 대외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처장 스님이 8일 일본 YMCA에서 열리는 '2·8 학생 대한독립선언'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 스님은 20일 귀국한다.

"광명 되찾고 싶어요"

하현수군·차명식씨 호소

실직의 아픔으로 시력 잃은 불자 차명식(36·경남 진주시 거평동)씨와 하현수 어린이(8·경남 통영시·사진)가 '화농성 홍채질염'을 앓고 있으나 2백만원의 수술비가 없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성금을 기탁할 분은 새생명광명회(0591-758-6611)로 연락하면 된다.



작가들의 소장품 2백26점등 4백17점(시가 1백여원 규모)의 예술품을 모교인 고려대에 기증했다.

용화사서 대장경 후원법회

종림 고려대장경 연구소장은 7일 인천 용화사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팔만대장경 캠페인 후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봉축행사 주관처 모집

심산 부산 봉축행사 연구기획위원회는 1월 30일 열린 신년 봉축행사를 마련하고, 사찰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주관처를 모집한다. (051)867-0501

양지마을에 팩스·의류 전달

운달 공주 미타암 주지는 신도와 함께 쌀 2가마, 팩스기 1대 등을 전달했다.

복지공로 서울시 표창 받아

각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은 결식아동 및 불우노인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향상에 공헌한 공로로 1월 25일 서울시 표창장을 받았다.

서예 4백17점 고려대 기증

김응현 응(서예가)은 4일 자신의 서예작품 1백17점과 다른

중국청사 학술조사후 귀국

이영자 동국대 교수는 '대각국사 의천' 관련 학술자료 조사를 위해 1월 15일~24일 중국 청사 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문학평론가협회 총회장에

홍기삼 동국대 국문과 교수는 1월 30일 열린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LA등 美 현대건축물 답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는 이상건을 이장인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을 도는 현대건축물 답사를 위해 20일 출국한다.

전국신도회 사무총장에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은 2일 사단법인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어린이 도서관 개원

이가를 불교 동화작가는 최근 경기도 분당 이매촌에 사재를 털어 20평규모 월당사 12석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개원했다. (0342)706-0677

최재구씨 49재 현성정사서



98년 12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한 최재구씨의 49재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흥은동 현성정사에서 봉행된다. 최씨는 동국대 경기대 교수, 동국대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8, 9, 10, 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시절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불교청소년회 명예회장, 월간 <불교사상> 회장, 대한체육회부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019)322-3548

종단협 국난극복법회 공로 본사에 감사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은 1월 30일 제35차 종단협 정기총회에서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과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봉행한 국난극복법회에 두 언론사가 적극 지원한데 따른 것. 감사패를 받은 김광삼·성낙승 사장은 "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이웃 고통 함께 나눠야죠"

'자비의 쌀 모으기' 태고종 사회부장 호명스님

태고종이 경제한파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나섰다. 1월 11일부터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에 착수한 태고종은, 4일 입춘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첫 수거법회를 가졌다. "종단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비의 쌀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은 쌀날과 부처님오신날, 백



중, 연말연시 등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수거된다. 수거된 쌀은 각 종무원별로 지역내 실직가정과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을 위해 쓰여진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화장문화 선도 조성범·최복선씨

조씨 봉분형 납골묘 발명특허 출원

최씨 1만평에 가족 납골공원 조성

화장문화 선도하는 두 불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한민족 납골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성주개발 조성범(36) 대표이사와 최근 서울 서초동에 납골문화전시장을 개설한 최복선(49·보현행) 라경장수탑건설팅 사장이 그들.



◇조성범씨



◇최복선씨

태화작가이기도 한 조성범씨는 최근 화장후 남은 유골을 납골 향아리에 담아 특수 제작된 납골 안치장에 모시는 봉분형 납골묘인 한민족 납골묘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이 납골묘는 석실과 외실로 구분된 왕릉형태의 이중구조로서 석실아래 휴으로 제작한 배수관을 통해 석실 내부 누수 및 결로(結露)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 약 1.3평의 면적에 12구의 유골을 안치해 경제적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조상을 한 곳에 모셔 선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례문화 계승은 물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납골시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씨의 말이다. (문의 02-3275-0120) 최복선(49·보현행·라경장수탑건설팅 대표)씨는 "화장 유골을 남기는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유해를 모시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5억여원을 들여 납골문화전시장을 개설했다. 부모님의 장수를 비는 마음으로 수의를 만드는 것과 같이 납골묘를 조성하는 것

이 백마디 말보다 효과적이라는 의미에서였다. 그래서 최씨는 경기 양수리 용수사 주지 임엽(96)스님과 함께 1만4천여평의 부지에 장수전불동산(02-588-7800)을 조성하고 있다. 장묘살상의 좌대부위에 가족 납골묘 등을 모시는 방법으로 납골묘묘원을 건설하고 사찰에서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립해 산자와 죽은 자의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가산불교대사람 출판기념회

가산불교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1월29일 서울 태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가산불교대사람(伽山佛敎大辭林)>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총회위원장 법승스님, 진각종 성초 통리위원장, 서둔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종찬 국가정보원장 김광삼 현대불교사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박철언 부총재 고산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일 박철언 자민련부총재(자민련사회복지회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박부총재는 "종단 사태의 후유증을 극복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종도들이 합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언론인회 회장단 고산스님 예방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단은 4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불교발전과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해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신광사회장(방송개발연구원사무처장)과 강신철(경향신문편집국장) 최정희(현대불교편집국장) 부회장, 김대근사무처장(한국경제매케팅부장)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 상반기 연수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상반기 연수회가 1월 29, 30일 이불간 강원도 원주 자연학습원에서 열렸다. 종무원들은 연수에서 '종무원 자질향상과 업무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각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단합 등을 통해 종단 안정과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종무원들은 치악산 상원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for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Includes details about the university's history, enrollment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for the admissions office.